

제36차 정기총회 새도나 관광안내

다시 한번 관광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그랜드캐년 관광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취소되었고, 새도나관광으로 집중하여 가기로 하고 대형버스 2대를 예약하였습니다. 1대당 50명까지만 승차할 수 있어서 1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이미 등록신청서에 새도나로 신청하신 분들은 6월 12일(월) 오후 2시 호텔 로비에 마련된 관광등록처에 오셔서 관광비(일인당 95불)를 내시면 됩니다. 현재 새도나를 신청하신 분들은 49명입니다. 그랜드캐년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새도나로 변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6월 12일(월) 오후 2시 호텔 로비에 마련된 관광등록처에 오셔서 등록비(일인당 95불)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1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제36차 정기총회 주강사 소개

이번 제36차 정기총회에 초청된 주강사는 안희목목사와 김이태목사이다.

안희목목사는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부친이신 안중모목사가 목회하던 공주침례교회를 이어 받은 2대목사이다. 공주침례교회는 한국침례교회가운데 가장 먼저 창립된 교회중의 하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꿈의 교회는 최근 멀티교회로서의 전환을 결정하고 공주, 세종, 대전교회가 독립교회로 독자적인 사역을 전개하되 한 비전과 한 사명을 갖고 함께 사역하는 멀티교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안희목목사는 이 세 독립교회의 대표목사로 7,000여 명의 성도를 섬기며 이끌고 있다.



안희목목사

김이태목사는 [천국생명의 세 덕목] [내 인생의 좌표] [흔적을 남기는 인생] [다윗의 눈물병] [그리스도인의 20가지 덕목] [인생의 영감을 찾아서] [다윗의 눈물병] [샘결의 무성한 가지]등 수많은 기독교서적의 저자이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목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성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젊은이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헌신하였고, 대전영락교회 담임목회자를 거쳐 현재 경주제일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다. 20년간 부흥성회 강사로 국내외 해외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포항극동방송국 설교자로 쓰임받고 있다.



김이태목사